

中國 中世 仙境說話의 展開(1)

- 六朝 志怪를 中心으로 -

金 元 東*

I

중국 소설은 문학적 관습에 지배되는 경향이 강하다. 前代 이야기의 구조나 구성요소가 後代에 많이 傳承된다. 志怪의 여러 유형의 說話 중에서 仙境 說話는 그러한 경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설화이다. 선경설화는 중국소설사에서 매우 강한 생명력을 지닌 설화로 후대 소설의 발전에 미친 영향이 크다. 선경설화는 神話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후대 愛情小說의 탄생 및 발전과 관계가 깊다.

지금까지 선경설화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六朝 시대 지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¹⁾ 선경설화의 기원에 대한 연구나, 그것을 계통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려운 듯하다.²⁾

* 순천향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전임강사

1) 王國良, 《魏晉南北朝志怪小說研究》(文史哲出版社, 1984년) 269-275쪽.
李豐楙, <六朝道教洞天說與遊歷仙境小說>(《小說戲曲研究》 제1집, 聯經出版事業公司, 1988년)

2) 선경설화에 대한 계통적인 연구로는 日人 小川環樹의 연구가 있다. 그는 《太平廣記》에서 선경설화를 선별하여 그것의 구성요소를 여덟 가지 추출

이 글은 神話에서부터 志怪와 唐 傳奇까지 通時的인 관점에서 연구된다.³⁾ 본 연구는 그러므로 선경설화의 변이과정의 탐색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 선경설화의 통시적인 접근을 통해 중국소설의 발전적인 면모를 파악하고, 나아가 지괴와 전기의 성격 및 특질 규명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답을 찾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선경설화는 선경에서의 경험을 중심축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이다. 선경설화는, 仙境에의 진입, 선경에서 仙女와의 만남, 선경을 나오면서 선녀와 이별하는 이야기이다. 여기에는 세부적인 구성요소가 결합되어 있고,⁴⁾ 이 세부적인 구성요소 중에는 시대에 따라 다른 요소가 첨가되거나 이전의 요소가 변형 혹은 탈락되기도 한다. 이 중 선녀와의 만남(결혼과 사랑)과 이별의 모티프가 선경설화의 핵심이다. 선녀와의 만남과 이별은 선경설화에서 필연적이다.

해냈다. 小川環樹, 《中國小説の研究》(岩波書店, 1968년), 267-270쪽 참조 (여덟 가지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아래의 注 4)를 참조 바람). 이 연구는 그 구성요소를 통해 선경설화의 한 범주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선경설화의 발전이나 변화 과정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경설화의 소설사적 위상이나 중요성이 파악되지 않았다. 이를 극복한 연구는 鄭在書 교수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日人이 추출한 선경설화의 여덟 가지 요소를 《山海經》과 연관하여 선경설화의 연원을 신화에 두고, 나아가 육조를 중심으로 선경설화의 구조를 분석하여 그것이 영웅신화적 탐색 구조를 취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鄭在書, 《不死의 神話와 思想》(민음사, 1994년) 86-87쪽, 147-153쪽 참조.

- 3) 필자가 연구 범위를 당 전기까지로 한정된 것은, 선경설화가 당대에 이르러 새로운 형태로 서서히 변형되기 때문인데, 이는 논문의 전개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 4) 1) 산 중에 유랑하는 사람이 있고, 선경은 산이거나 海島로 제시된다. 2) 선경에 도착하기 전에 동굴을 통과한다. 3) 仙藥과 식물을 받는다. 4) 미녀와 결혼한다. 5) 도술을 전수 받고 선물을 얻는다. 6) 고향을 그리워하거나 돌아가기를 권고 받는다. 7) 선경과 속세의 시간 경과가 다르다. 8) 다시 돌아오거나 돌아오지 못한다. 小川環樹, 위의 책, 같은 곳.

II

신화에서 남녀의 만남과 이별은 神(여)과 인간(남)과의 관계로 나온다. 신은 天帝의 딸들로 女神이다. 천제의 딸로는 炎帝의 딸인 女娃와 瑤姬, 堯의 두 딸(娥皇과 女英), 그리고 伏羲氏의 딸 宓妃가 있다. 이 중 宓妃를 제외하고 모두 《山海經》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⁵⁾

1) 다시 북쪽으로 200리를 가면 발구산이라는 곳인데 산 위에서는 산뽕나무가 많이 자란다. 이곳의 어떤 새는 생김새가 까마귀 같은데 머리에 무늬가 있고 부리가 희며 발이 붉다. 이름을 정위(精衛)라고 하며 그 울음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와 같다. 이 새는 본래 炎帝의 어린 딸로 이름을 女娃라고 하였다. 여왜는 동해에서 노닐다가 물에 빠져 돌아오지 못하였는데 그리하여 정위가 되어 늘 서쪽 산의 나무와 돌을 물어다가 동해를 메우는 것이다. 漳水가 여기에서 나와 동쪽 황하에 흘러든다. (又北二百里, 曰發鳩之山, 其上多柘木. 有鳥焉, 其狀如鳥, 文首, 白喙, 赤足, 名曰精衛, 其鳴自詒. 是炎帝之少女名曰女娃, 女娃游于東海溺而不返, 故爲精衛, 常銜西山之木石, 以堙于東海. 漳水出焉, 東流注于河) <北山經>⁶⁾

2) 다시 동쪽으로 200리를 가면 고요산이라는 곳이 있다. 炎帝의 딸이 여기에서 죽었는데 그 주검을 女尸라고 하고, 薺草로 변화하였다. 그 잎은 서로 겹쳐 나고 꽃은 노랗고 열매는 새삼 같은데 이것을 먹으면 남에게 사랑을 받는다. (又東二百里, 曰姑媯之山. 帝女死焉, 其名曰女尸, 化爲薺草, 其葉胥成, 其華黃, 其實如菟丘, 服之媚于人) <中山經>⁷⁾

3) 다시 동남쪽으로 120리를 가면 동정산이라는 곳인데, 산 위에서는 황금이, 기슭에서는 은과 철이 많이 나며 나무로는 아가위·배·굴·유자나무가, 풀로는 간초·미루·작약·궁궁이가 많이 자란다. 천제의 두 딸이 이곳에 살고 있으며 그들이 늘 장강의 깊은 곳에서 노닐면 예수와 원수의 동파가 소상의 깊은 곳에서 맞부

5) 아래의 원문과 번역은 鄭在書 譯注, 《山海經》(민음사, 1993년)에 의거했음.

6) 위의 책, 133-134쪽

7) 위의 책, 182쪽. 袁珂에 의하면, 炎帝의 딸은 瑤姬임.

뒹히는데 그것은 구강의 근처에서이다. 그들은 물속을 드나들 때 반드시 회오리 바람과 폭우를 동반한다. 이곳에는 괴상한 신들이 많은데 형상은 사람 같지만 뱀을 머리에 이고 양손에 쥐고있다. (여기에는) 괴상한 새도 많다.(又東南一百二十里, 曰洞庭之山, 其上多黃金, 其下多銀鐵, 其木多相梨橘柚, 其草多薺蘘蕪芍藥芎藭. 帝之二女居之, 是常遊于江淵澧沅之風, 交瀟湘之淵, 是在九江之間, 出入必飄風暴雨. 是多怪神, 狀如人而載蛇, 左右手操蛇. 多怪鳥)<中山經>⁸⁾

이들 신화에는 여러가지 신화의 상징적인 요소가 있다. 어린 소녀(혹은 여자), 물, 죽음, 變形(새, 香草), 사랑(性), 뱀 등이 그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생성, 재생, 불멸, 다산, 풍요, 생식 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달의 신화적인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⁹⁾ 《산해경》을 月神信仰의 관점에서 풀이하는 杜而未는 위의 두 신화에 나오는 精衛와 蓍草를 달과 관련된 再生의 신화로 파악한다.¹⁰⁾ 이들 신화는 죽음과 재생(변형) 관념의 원시신앙의 한 형태에 속한다.¹¹⁾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2)에 나오는 女神인 瑤姬의 인간과의 사랑이다. 이것이 후대의 변모를 거쳐 인간과 신의 결합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瑤姬는 宋玉의 <高堂賦>에서 楚懷王과 사랑을 나누는 여신으로 등장한다. <고당부>에 인용된 <襄陽耆舊傳>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炎帝의 딸 瑤姬는 결혼을 못하고 죽어 巫山의 북쪽에 장사를 지냈다. 때문에 巫山의 女라고 한다. 楚懷王이 高堂에서 놀다 낮에 잠을 자는데 꿈 속에서 이 女神을 만났는데, 자신을 巫山의 女神이라 했다. 王이 이로 인해 그녀를 사랑하였

8) 위의 책, 218-219쪽. 천제의 두 딸은 堯의 두 딸로 舜의 王妃였던 娥皇과 女英이다.(汪紱) 堯도 신화 속에서는 天帝이다.(袁珂)

9) 미르치아 엘리아드 지음, 이재실 옮김, 《종교사개론》(까치, 1993년) 153-181쪽 참조.

10) 杜而未 著, 《山海經神話系統》(學生書局, 1984년) 84, 104쪽

11) 王孝廉, <死與再生-原型回歸的神話主題與古代時間信仰>(《古典文學》 제 7집, 學生書局, 1985년) 137-138쪽

다. 이에 巫山의 남쪽에 누각을 만들어 朝雲이라고 했다. 후에 襄王이 또 高堂에서 놀았다.(赤帝女姚姬, 未行而卒, 葬於巫山之陽. 故巫山之女. 楚懷王遊於高堂, 晝寢夢見與神遇, 自稱是巫山之女. 王因幸之, 遂爲置觀於巫山之南, 號爲朝雲, 後至襄王時, 復遊於高唐.)¹²⁾

일반적으로 巫山의 여신이라고 하는 瑤姬는 여기에서 결혼을 못하고 죽은 인물로 나온다. 이러한 사실은 江淹의 <別賦>에 송옥의 <고당부>를 인용한 곳에서도 동일하게 보인다.¹³⁾ 요컨대 瑤姬는 결혼을 못한 채 죽어 亡魂으로 남자와 사랑을 나누는 여신인 것이다. 여신은 앞서 언급했듯이 생산이나 풍요와 관련이 깊은 신화적 인물이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帝女가 남자와 결합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神話祭儀的 사고이다.

남녀의 만남과 사랑이 제의적인 성격을 띠는 것은 《詩經》의 <鄭風> 詩에서도 나타난다. <정풍> 시는 청춘 남녀들이 봄이 되면 溱水와 洧水에 나와 사랑을 나누다가 芍藥을 서로 주고받으며 헤어진다는 내용이다. 《韓詩》에 의하면, 三月 上巳節에는 溱水와 洧水 가에 나와 招魂續魄¹⁴⁾하고, 蘭草를 들고 나와 不祥을 제거하며 애인끼리 물가로 나간다고 한다.¹⁵⁾ 여가에 나오는 물, 남녀, 초혼속백 등의 이미지는 풍요를 기원하는 農耕祭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¹⁶⁾

《楚辭》에는 神과 인간간의 사랑과 애정을 노래하는 巫歌가 많은데, 제의적인 성격이 강하다.¹⁷⁾ 특히 <九歌> 중에서 남자와 여신의 만남과 사랑

12) 蕭統 編, 《文選》(上下)(正文社, 1983년), 445쪽

13) 위의 책, 395쪽, “我帝之季女, 名曰瑤姬, 未行而亡, 封于巫山之臺, 精神爲草, 寔曰靈芝”

14) 魂을 불러 魄에 이어주어 생명을 재생하게 한다는 의미인 듯함

15) 金學主 譯, 《詩經》(明文堂, 1984년) 164-165쪽

16) 格拉耐 著, 張銘遠 譯, 《中國古代的祭禮與歌謠》(上海文藝出版社, 1989년) 147-154쪽 참조, 엘리아드, 앞의 책, 335-337쪽 참조,

을 노래하고 있는 <湘君>, <湘夫人>, <山怪> 등은 제녀와 비슷한 성격의 것으로 주목된다. <상부인>과 <상군>은 천제의 두 딸과 관련이 있고,¹⁸⁾ 남자와 여신(男神과 여자)의 사랑이 강렬하게 표출되어 나타난다. <산괴>에는 사랑을 갈구하는 어린 소녀가 나오는데, 天帝의 어린 딸인 瑤姬와 유사하다. 앞서 언급한 伏羲氏의 딸 宓妃는 洛水에 빠져 河神이 된 여신으로 <離騷>에서는 淫女로 형상화되고 있으며,¹⁹⁾ <洛神賦>에서는 魏王과 사랑을 나누는 여신으로 등장한다.²⁰⁾ <九歌>에 나오는 이러한 여신들은 앞의 《산해경》에 나오는 여신들처럼 어린 나이, 물, 죽음, 혼령 등의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제녀의 형상에 가깝다. 이러한 여신은 죽은 뒤 재생한 혼이기 때문에 남자와 사랑을 나누는 뒤 이별을 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제녀의 죽음과 재생, 그리고 남자와의 사랑은 이후 선경설화의 원형이 된다. 즉 (결혼을 하지 못하고) 죽은 어린 소녀, 변형과 재생, 인간과의 사랑과 이별 등의 요소는 선경설화의 구성요소와 구조를 형성한다.

Ⅲ

위의 제녀(여신)의 죽음, 변형, 재생은 선경설화의 선녀 출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변형은 하나의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로, 혹은 전혀 다른 異種

17) 《楚辭》의 巫歌祭儀의 성격에 대해서는 金寅浩의 《楚辭의 巫歌性 研究》(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2년) 참조

18) <상군>와 <상부인>의 신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堯의 두 딸과 관련 있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金寅浩, 위의 책, 194쪽

19) 黃壽祺, 梅桐生 譯注, 《楚辭全譯》(貴州人民出版社, 1993년) 19-20쪽 참조

20) 蕭統 編, 위의 책, 453-457쪽

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중국인의 창조관과 접맥되어 있다.²¹⁾ 이러한 변형을 통한 창조적인 관념(재생 관념)은 선경설화에 그대로 전승된다.

秦漢代에는 신선사상이 성행했다. 신선사상은 인간의 不死 추구가 근본적인 목표이다. 그래서 죽음, 변형, 재생의 제녀 신화는 쉽게 신선사상과 결합한다. 즉 신화에서의 변형, 재생 관념이 신선사상과 결합되어 신화제의의 상징적인 죽음이 인간의 실재 죽음에 적용된다. 인간은 죽은 뒤 그 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蓬萊山이나 西王母가 지배하는 西方世界와 같은 仙境에서 재생한다는 관념²²⁾으로 제녀 신화를 변용시킨다. 그래서 제녀의 죽음과 재생의 상징성이 신선사상의 외피를 입고 신화상의 죽음의 공간(無空間)이 仙境(저세상)으로, 제녀가 선녀로 나타나게 된다. 실제로 제녀는 신선사상의 영향하에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神仙으로 나온다. 그 대표적인 예가 《列仙傳》의 <赤松子>, <江妃二女>에 나오는 炎帝의 딸과 漢水의 女神인 二女²³⁾이다. 이들은 모두 이제 女神이 아니라 神仙으로 나타난다.²⁴⁾

이렇게 해서 선녀가 등장하는 仙境說話의 초기형태가 형성된다. 이 초기 형태의 선경설화는 《搜神記》에 집중적으로 나온다. 《수신기》에 제녀 신화의 변형된 선경설화가 대부분 수록되어 있는 것은 干寶의 《수신기》 편찬 동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간보는 두 사람(侍婢와 그의 兄)이 죽어 재생한 경험을 통해 “古今의 神祇靈異와 人物變化를 모아서 《수신기》라고 하였다”(撰集古今神祇靈異人物變化, 名爲搜神記)²⁵⁾고 《수신기》의 편찬 동기를 밝혔다. 이 편찬 동기에는

21) 마이클 로이 지음, 이성규 옮김, 《古代中國人の 生死觀》(지식산업사, 1993년), 89쪽

22) 위의 책, 제3장 참조

23) 郭璞에 의하면, 江妃二女는 천제의 두 딸이다. 郭璞注, 《山海經·穆天子傳》(岳麓書社, 1995년) 109쪽.

24) 劉向 撰, 《列仙傳》(上海古籍出版社, 1990년) 1條, 24條

25) 《晉書》 <干寶傳>, 上海古籍出版社, 1992년

무엇보다도 재생 개념이 깊이 개재되어 있다. 재생은 변신, 변화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수신기》 12권의 卷頭に 있는 <變化論>²⁶⁾은 특히 주목된다. 이 글은 漢代思想의 중심이었던 陰陽五行의 氣化論에 뿌리를 두고 인간의 삶과 죽음, 한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로 변화(鬼, 妖怪 등)하는 이유를 변화의 관점에서 풀이한 내용이다.²⁷⁾ 간보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수합하였고 따라서, 신화 중에서 變形神話만을 특별히 수록하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14권에 나오는 죽어 다시 男女同體로 재생하는 이야기, 嫦娥가 不死藥을 훔쳐 달에 도망가 두꺼비가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앞서 언급되었던 제녀가 죽어 香草로 변했다는 이야기가 그러한 예이다.²⁸⁾

《수신기》에는 대략 여섯 편의 선경설화가 전한다. <杜蘭香>, <弦超>, <紫玉>, <辛道度>, <談生>, <盧充>²⁹⁾이 그것이다. 이 이야기들을 성격상 전자의 두 이야기를 仙女下降 이야기로, 후자의 네 이야기를 冥婚 이야기로 구별하여 살펴 보겠다.

선녀하강 이야기인 <杜蘭香>과 <弦超> 두 이야기에 나오는 杜蘭香과 成公知瓊은 선경에서 不死의 존재로 재생한 선녀이다. 두 선녀는 결혼을 못하고 일찍 죽은 여자로 남자와 결혼 하기 위해 天上에서 地上으로 下降한다. 두난향은 “西王母가 낳은 딸로서 그대(筆者注, 張碩을 가리킴)와 결혼하도록 보내졌고”(阿母所生, 遣授配君)³⁰⁾, 성공지경은 “일찍이 부모를 여의어 天帝가, 저의 외롭고 고달픔을 가련히 여겨 인간 세상에 내려가 결혼하도록 하

26) 干寶, 黃濼明 譯注, 《搜神記全釋》(貴州人民出版社, 1991년), 300條

27) 康韻梅, <試由變化論略論搜神記的成書立意和篇目體例>(《小說戲曲研究》 제3집, 聯經出版社, 1990년) 참조

28) 干寶, 앞의 책, 340條, 351條, 352條

29) 위의 책, 30條, 31條, 394條, 395條, 397條

30) 위의 책, 39쪽

였다.”(早失父母, 天帝哀其孤苦, 遣令下嫁從夫.)³¹⁾며 남자의 꿈 속에 나타나 말한다. 두 선녀는 女神이 남자와 사랑을 나누듯 결혼과 사랑을 위해 인간세계에 하강한다. 그 결혼의 중개자는 천상의 西王母와 天帝이다. 즉 결혼은 天定에 의해 성립된다.

선녀와 인간의 만남에는 이별이 필연적이다. 그녀들이 亡魂³²⁾이기 때문이다. 두 남녀가 특정한 날에 서로 만남의 기회를 가지기도 하지만, 지상에서 영원히 함께 살지는 못한다. 성공지경은 “나는 神人입니다.……여러 해 동안 그대와 교제하여 그 情이 얹지 않은데 하루 아침에 이별을 하는 것이 어찌 비통하지 않겠습니까. 사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 서로 잘 지내죠”(我 神人也,……積年交結, 恩義不輕, 一旦分別, 豈不愴恨. 勢不得不, 各自努力)³³⁾라며 떠나간다.

이별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贈物이다. 이 증물은 《楚辭》의 <상부인>과 <상군>에도 보이는데, 神이 인간에게 내리는 선물이다.³⁴⁾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논의하겠지만, 그것은 不死 및 재생 의식과 관련이 깊다. 이 증물은 선경설화에서 중요한 한 요소이며, 점차 증물의 부여 방식과 그 의미가 변하기도 한다.

명혼 이야기는 여자가 墳墓에서 귀신으로 등장하는데, 선경에서 선녀가 하강하는 선녀하강의 이야기와 동일한 형태의 초기 선경설화이다. 귀신과 분묘는 선녀, 선경과 다르지 않다. 명혼 이야기는 선녀하강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31) 위의 책, 41쪽

32) 이 두 선녀는 현세의 인물로 죽은 뒤 망혼이 되었음. 이 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小南一郎 著, 孫昌武 譯, 《中國的神話傳說與古小說》(中華書局, 1993년) 249-253쪽 참조 바람

33) 干寶, 앞의 책, 42쪽

34) <湘夫人>에는 袂, 襟, <湘君>에는 玦, 佩가 선물로 나온다. 黃壽祺, 梅桐生 譯注, 앞의 책, 36쪽, 39쪽. <漢武內傳>에서는 西王母가 漢武帝에게 복숭아를 내린다. 《太平廣記》(全10卷)(中華書局, 1990년) 3권

지로 여자가 결혼을 하지 못한 채 죽어 그 혼이 살아나(재생) 남자와 무덤에서 결혼(冥婚)하고 이별한다는 이야기이다. 네 이야기 중에서 <담생>에서만 여자의 결혼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다른 이야기들은 모두 동일하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지괴에서도 敘事性이 뛰어난 이야기들인데, 詩가 삽입된 <자옥>, <노충>이 특히 그러하다. <자옥>을 예로 명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吳王 夫差의 어린 딸의 이름은 紫玉이다. 芳年 18세로 才貌가 출중한 아리따운 소녀였다. 열 아홉의 나이로 도술을 지진 韓重이라는 사내가 있어 그녀는 그를 좋아해 비밀리에 서신을 왕래하며 그의 처가 되기로 했다. 한중은 齊魯지방에서 공부했기에 떠나면서 그의 부모에게 夫差의 집안에 婚姻을 청할 것을 당부했다. 夫差는 화를 내면서 그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고, 자옥이 숨이 막혀 죽게 되자 閨門 밖에다 장사를 지냈다. 三年이 지나 한중이 돌아와 그의 부모에게 그 사실을 따져 물으니 “왕이 몹시 화를 내니 자옥이 숨이 막혀 죽어 벌써 장사를 지냈다.”고 답했다. 한중은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 하며 祭需에 쓰는 牲과 幣를 준비해 묘소로 조문을 갔다. 자옥의 혼이 무덤에서 나와 한중을 보고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말했다. “옛날에 당신이 떠난 뒤 당신의 양친께서 저의 아버지에게 혼인을 청했을 때 그 바람이 꼭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게 당신이 떠난 후 이런 운명을 당했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자옥은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남산에 까마귀 있고, 북산에 그물을 펼쳐 놓았네. 까마귀가 높이 날아가 버리니 그물을 어찌할까! 그대를 따르고 싶었지만 혈뜰는 말들이 너무 많구료. 슬픔이 가슴에 맺혀 병 생겨, 목숨 끊어져 황천에 있소. 운명이 그러하니 원망한들 무엇하랴! 鳥類의 으뜸은 봉황이라, 어느 날 수컷을 잃고 삼년 동안이나 슬퍼하네. 못 새들 있지만 짝이 될 수 없네. 초라한 내 모습 그대를 만나니 빛이 나네. 몸은 멀지만 마음은 가까우니, 어찌 잠시라도 잊을 수 있겠는가?” 노래를 마치고 소리 내어 눈물을 흘리며 한중에게 무덤으로 함께 가기를 청했다. 한중이 말했다. “生과 死는 서로 다른 길이어서 禍가 미칠 것이니 그대의 청을 들어 줄 수 없소이다.” 자옥이 “生死가 다른 길임을 저도 모르는바 아니나, 지금 한 번 이별하면 영원히 만날 수 없습니다. 그대는 제가 귀신이라 당신을 해칠까 두렵습니까? 정성을 다해 모시고자 하운데 어찌 저를 믿지 않으신지요?”라고 했다. 한중이 그녀의 말에 감동하여 함께 무덤으로 들어갔다. 자옥은 그와 술잔치를 벌리고 삼일 밤낮을 머물러 있으면서 혼례를 올렸다. 한중이 나오고자 하는데 그녀는 一寸 쯤 되는 明珠를 그에게 주면서 “이미

저는 명성도 바램도 없어졌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리오! 몸이나 건강하십시오. 만약 저의 집에 가게 된다면 대왕께 경의를 표하십시오”라고 했다. 한중이 곧장 대왕께 가서 그 일을 말했다. 왕이 크게 화를 내며 “내 딸은 이미 죽었거늘 그대가 거짓말로 망령을 더럽히구나. 이明珠는 무덤을 파서 꺼낸 물건인데, 귀신이 한 것이라고 하는구나”라며 곧장 한중을 체포하였다. 한중은 자옥의 무덤으로 달려가 하소연하였다. 자옥은 “제가 곧장 가서 왕께 아뢴테니 걱정하지마십시오”라고 했다. 왕이 몸단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옥이 나타났다. 왕은 놀라면서 희비가 교차하였다. 그녀에게 “너가 어떻게 살아 났느냐?”하니 자옥이 무릎을 꿇고 말했다. “예전에 晝生인 한중이 저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아버님께서 허락하지 않아 저의 명예가 훼손되고 情도 끊겨 죽게 되었지요. 한중이 먼 곳에서 와서 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祭需를 마련해서 무덤에 와 조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이는 그의 정성에 제가 감동하여 그와 서로 만나 그에게明珠를 주었습니다. 무덤을 판 것이 아니오니 그를 추궁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했다. 오왕의 부인이 그 말을 듣고 나와 그녀를 안으려하니 자옥은 연기처럼 사라졌다.(吳王夫差小女, 名曰紫玉, 年十八, 才貌俱美. 童子韓重, 年十九, 有道術. 女悅之, 私交信問, 許爲之妻. 重學於齊魯之間, 臨去, 屬其父母, 使求婚. 王怒, 不與女. 玉結氣死, 葬閭門之外. 三年重歸, 詰其父母, 父母曰王大怒, 玉結氣死, 已葬矣. 重哭泣哀慟, 具牲幣, 往弔于墓前. 玉魂從墓出, 見重, 流涕謂曰昔爾行之後, 令二親從王相求, 度必克從大願. 不圖別後, 遭命奈何! 玉乃左顧宛頸而歌曰 南山有鳥, 北山張羅. 鳥既高飛, 羅將奈何! 意欲從君, 讒言孔多. 悲結生疾, 沒命黃墟. 命之不造, 寃如之何! 羽族之長, 名爲鳳凰. 一日失雄, 三年感傷. 雖有衆鳥, 不爲匹雙. 故見鄙姿, 逢君輝光. 身遠心近, 何當暫忘. 歌畢, 歔歔流涕, 要重還冢. 重曰 死生異路. 懼有尤愆, 不敢承命. 玉曰, 死生異路, 吾亦知之. 然今一別, 永無後期. 子將畏我爲鬼而禍子乎? 欲誠所奉, 寧不相信. 重感其言, 送之還冢. 玉與之飲讌, 留三日三夜, 盡夫婦之禮. 臨出, 取徑寸明珠而送重曰, 旣毀其名, 又絕其願, 復何言哉! 時節自愛. 若至吾家, 致敬大王. 重旣出, 遂詣王, 自說其事. 王大怒曰, 吾女旣死, 而重造訛言, 以玷穢亡靈. 此不過發冢取物, 託以鬼神 趣收重. 重走脫, 至玉墓所訴之. 玉曰 無憂. 今歸白王. 王糝梳, 忽見玉, 驚愕悲喜, 問曰, 爾緣何生? 玉跪而言曰, 昔諸生韓重, 來求玉, 大王不許, 玉名毀義絕, 自致身亡. 重從遠還, 聞玉已死, 故齎牲幣, 詣冢弔唁. 感其篤終, 輒與相見, 因以珠遺之. 不爲發冢, 願勿推治. 夫人聞之, 出而抱之, 玉如烟然)³⁵⁾

이 이야기는 부친의 반대로 결혼을 하지 못하고 귀신(망혼)이 되어 산 남

35) 干寶, 앞의 책, 449-450쪽

자와 무덤에서 결혼한다는 내용이다. 부친의 완강한 반대로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 이야기에만 나오는 부분으로 명혼 이야기에서 중요하지 않다. 명혼 이야기의 핵심은 산 남자와 죽은 여자의 결혼이다. 여기에는 제녀 신화의 상징성(죽음, 재생, 생산, 풍요 등)이 개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 설화에는 제녀에 거의 상응하는 인물들이 선택된다. 그녀들은 秦閔王의 딸(<신도도>), 睢陽王의 딸 <담생>, 귀족신분의 딸(<현초>, <노충>)이다. 그녀들은 모두 결혼을 하지 못하고 죽어 혼(귀신)이 되어 결혼하는 인물들이다. 이러한 인물들의 死後結婚은 최적의 생의 조건과 충만한 생식력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바람이 깃들여 있다.³⁶⁾ 때문에 그들의 죽음의 공간(분묘)도 제녀의 죽음과 재생에 상응하듯 불사의 공간으로 나타난다. 단지 天上이 아닐 뿐 분묘는 불사의 공간인 仙境과 다르지 않다. 분묘를 큰 저택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점(<신도도>)이나, 靑衣女子(<신도도>, <노충>)가 있다는 점 등은 모두 분묘가 불사의 공간인 선경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별의 증물은 그러한 점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珠袍(<담생>), 金枕(<신도도>), 金鑲(<노충>), 그리고 선녀하강 이야기에 나오는 仙藥(<두난향>), 裙衫(<현초>) 등의 부장품은 시체의 부패를 막아 불사의 존재로 재생하게 하려는 욕구의 상징물로, 이는 불사와 재생 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³⁷⁾ 여자가 아이를 낳아 남자에게 양육하게 하는 것(<노충>, <담생>) 역시 死者가 지상에서 연속된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36) 엘리아드, 앞의 책, 332쪽

37) 漢代의 황제나 귀족들의 경우, 珠襦와 玉匣이 주된 부장품이었는데, 이는 死者의 不死 의식과 관련이 있다. 周一良, 《魏晉南北朝札記》(中華書局, 1985년) 6-9쪽 참조. 의복은 생명력을 부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고대 귀족 계층의 장례의식에서 여자가 죽으면 생전의 결혼예복을 입혔다. Hanna rydh, <Seasonal fertility rites and the death cult in scandinavia and china>(Bulletin of the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No.3, Stockholm. 1931년) 92쪽.

<노충>에서는 이러한 재생, 영원한 삶의 관념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노충이 무덤에서 혼례를 마치고 나와 최씨의 딸과 다시 만날 때 아래와 같이 서술되어 있다.

헤어진 뒤 사년이 지나 三月 三日에 노충이 물가에서 노니는데 물가에 갑자기 두 마리의 소가 끄는 수레가 나타나더니 가라앉았다 떴다 했다. 그리고는 강가에 가까이 다가 왔다. 그와 함께 앉았던 사람들이 모두 다 보았다. 노충이 가서 수레 뒤의 문을 여니 최씨의 딸과 세살난 아들이 함께 거기에 있었다.(別後四年, 三月三日, 充臨水戲, 忽見水旁有二犢車, 乍沈乍浮. 既而近岸, 同坐皆見. 而充往開車後戶, 見崔氏女與三歲男共載.)³⁸⁾

여기에서 그들이 만나는 三月 三日은 바로 풍요와 생산의 제의적인 상징과 관련 있는 上巳節이다. 따라서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과, 명혼 이야기에서만 나오는 여자가 준 증물을 남자가 저자에서 팔아 많은 돈을 얻는 것 역시 그것의 상징인 셈이다.

이 명혼 이야기에는 掘冢 모티프가 부가되어 있다. 이것은 죽은 여자가 살아났다는 사건을 사실화한다는 생각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는 재생설화의 핵심 모티프이기도 한데, 재생설화는 掘冢을 통해 재생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 서사이다. 그것은 《수신기》 序에 나오는 “神道가 거짓되지 않음을 밝히겠다.”(明神道之不誣)는 간보의 표명과 부합한다.

요컨대 명혼 이야기는 분묘에서 결혼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 선녀하강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명혼 이야기와 선녀하강 이야기는 동일한 계통에서 나온 것이다. 즉 이 초기 선경설화는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뒤 재생하여 남자와 결혼하는 이야기로, 어린 나이로 죽은 女神들의 재생, 인간과의 사랑, 그리고 이별을 축으로 하는 신화에 가깝다. 때문에 여기에서는 재생, 생산, 풍요와 같은 신화제의적인 요소가 강조된다. 또한 선경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38) 干寶, 앞의 책, 457쪽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신화의 상징적인 세계에 보다 접근해 있다. 선경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그곳을 인간이 경험하는 전형적인 선경 설화는 이보다 조금 뒤인 東晉 후반기부터 출현한다.

IV

본격적인 선경설화의 출현은 동진 후기 洞窟이라는 공간이 탄생되면서부터이다. 이 동굴은 선녀하강 이야기나 명혼 이야기에 나타나지 않은, 인간세상과 동떨어진 別世界の 공간 출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인간의 이상세계의 공간이 탄생한 것이다. 이상세계로서의 공간은 신화에서부터 존재했다. 그러나 그 공간이 지상으로 내려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최초의 동굴은 아마도 《산해경》에 나오는 西王母가 거주하는 洞穴일 것이다.³⁹⁾ 동진 이후에 출현한 동굴은 이 신성한 공간의 이미지를 갖고 탄생하였을 것이다. 이 선경 공간의 출현은 고대인들의 山嶽崇拜와 관련이 깊다. 산악은 일반적으로 天界와 연결되는 神들이 사는 곳이며, 인간이 동경하는 낙원이다. 《산해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산은 이런 의미에서 聖山으로서 숭배의 대상이 된다.⁴⁰⁾ 이러한 산악 숭배에 의해 《史記》〈封禪書〉에는 나오는 蓬萊, 方丈, 瀛洲 三神山이나, 이외 五神山, 十洲三島 등이 시대에 따라 나오면서 선경이 다양하게 되었다.⁴¹⁾

이 중 산 속의 동굴이 처음으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등장한

39) 鄭在書 譯注, 앞의 책, 312쪽

40) 鄭在書, 앞의 책, 92-94쪽 참조

41) 王國良, 앞의 책, 265-269쪽 참조

다. 이는 인간의 지리 공간에 대한 관념이 확대되었음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이전까지는 선경이 단지 추상적인 지리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인간이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공간이 된 것이다. 선경이 구체적인 공간이면서 서사의 공간으로 탄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소설의 역사에 있어 큰 변화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구체적인 공간으로서의 동굴 출현은 동진 이후의 시대적, 정신적인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 六朝時代는 門閥貴族社會였다. 개인의 신분은 철저히 가문과 문벌에 의해 규정되었다. 명망있는 가문 태생은 처음부터 관직의 독점과 세습권을 반자동적으로 부여받는 정치적 법제적인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⁴²⁾ 이러한 문벌체제는 동진 시기에 이르러 가장 심하였다. 동진 후기에 일어난 道教의 한 파인 上清派에서는 종교적으로 이러한 문벌제도와 신분질서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였는데, 이것이 동굴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眞誥》에 설정된 세 공간인 仙界, 人間界, 鬼界가 바로 그것이다. 이 세 공간은 현실사회의 신분질서와 유사하게 설정된 공간이다. 선계는 제일 위이며, 그 중간은 인간계, 귀계는 제일 아래로 그 등급이 정해져 있다.⁴³⁾ 선계는 신선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36개의 洞天이 있으며 산 중의 동굴에 산재되어 있다.⁴⁴⁾ 그리고 귀계는 北方 海上의 羅酆山에 있다.⁴⁵⁾ 이 선계와 귀계 안에서도 역시 신분의 위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허구적인 공간은 현실 세계의 그것과는 다르다. 여기에서는 현실에서처럼 문벌에 의해 인간이 선

42) 서울대학교동양사학연구실 편, 《강좌중국사》 2, 지식산업사, 1991년, 24쪽

43) 《眞誥》 卷16, <闡幽微> 第2 注, “此幽顯中, 都是有三部, 皆相關類也. 上即善, 中即人, 下即鬼.”(《道藏要籍選刊》 (4), 上海古籍出版社, 1989년)

44) 《眞誥》 卷11, <稽神樞> 第1, “大天之內有地中之洞天三十六所”, 卷 11-14 卷의 내용.

45) 《眞誥》 卷15, <闡幽微> 第1 “羅酆山在北方癸地.” 이 부분의 注에 羅酆山은 北海 가운데에 있다고 함

계나 귀계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人間 個人的 倫理性에 기초하여 선계나 귀계로 보내지기 때문이다. 선계나 귀계에서도 또한 개인의 功過에 의해 언제든지 선계에서 귀계로, 귀계에서 선계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허구적인 공간의 설정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신분질서 해소의 종교적인 표현이다. 동굴의 출현은 이러한 당시의 시대적인 질곡을 돌파하기 위해 상청파에서 발견한 허구적인 공간인 36洞天에서 비롯된다.⁴⁶⁾ 동굴은 현실세계의 도피처이자 이상적인 공간이다. 이 공간은 이제 신화나 초기 선경설화에서의 재생과 생산의 공간과는 거리가 있다.

《搜神後記》 권 1에는 <桃花源記>를 비롯하여 동굴이야기들이 여러 편 나온다. 모두 凡人인 남자가 별세계를 경험하고 그곳을 나오는 이야기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남자는 평범한 인물이 아니면 무명의 인물이다. 평범한 인물이라는 점은 당시의 시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그들은 <도화원기>에 나오는 시대와 무관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장기 놀이를 하는 신선들을 동굴 속에서 만난다. 그들은 동굴에서 饑渴을 면할 수도 있다.⁴⁷⁾ 동굴에서는 시간이 현세와 다르게 진행되며, 그곳을 나오면 현세의 시간은 엄청나게 지나가버리고 모든 것이 변해있다.⁴⁸⁾ 동굴은 현실에서 충족되지 않는 것을 해결해 주며, 안락과 즐거움을 주는 공간의 표상인 것이다. 이 동굴은 재생과 풍요의 신화적인 공간이 아니라 범인들의 願望 충족의 공간이다. 그래서 범

46) 상청파 및 세 공간의 설정과 시대적인 관계에 대한 더 구체적인 논의로는 Michel Strickmann의 <The Mao Shan Revelations: Taoism and the Aristocracy>(《T'oung Pao》 Vol. LXIII, 1, 1977년), 神塚淑子の <眞誥について> (上)(《名古屋大學教養部紀要》 30, 1986년), 都築晶子の <南人寒門寒人の宗教的想像力について>(《東洋史研究》 제47권 2호, 1988년)를 참고 바람

47) 陶潛, 汪紹楹 校注, 《搜神後記》(中華書局, 1988년) 2條, 劉義慶, 《幽明錄》(魯迅, 《古小說鈎沈》 (上·下), 新藝出版社, 1970년) 38條

48) 劉義慶, 위의 책, 38條

인들은 동굴을 나와서 다시 그곳을 찾고, 신선처럼 장생을 바라거나 신선이 되기를 바란다.⁴⁹⁾ 이러한 의미에서 그곳은 인간의 영원한 이상향이다. 때문에 그 선경은 절벽이거나 매우 협소한 다리를 지나는 등 인간세계와는 隔絶되어 있고, 인간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⁵⁰⁾ 여기는 신선이 머무는 공간이며, 인간들의 영원한 동경의 세계이다.

선경설화로는 <劉晨·阮肇>, <黃原>, <袁相·根碩> 세 이야기가 전한다.⁵¹⁾ 이 이야기들은 모두 범인인 남자가 우연히 동굴에 들어가 선녀와 사랑을 나누고 다시 나오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들의 핵심 역시 남자와 선녀의 결혼(사랑)과 이별이다. 이들 중 <황원>을 예로 살펴보자.

漢나라 때 太山에 사는 황원이 날이 밝아 문을 여니 뜻밖에 靑犬 한마리가 문밖에 엎드려 지키고 있었다.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개와 똑 같았다. 황원은 그 개를 줄로 묶어 이웃사람을 따라 수렵을 나갔다. 날이 저물어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나서 곧 개를 풀었는데, 그 개는 너무 느리게 달려가고, 황원은 전력을 다해 뒤 따라가도 끝내 따라 잡을 수 없었다. 몇 리를 가다 보니 한 굴이 나타났다. 백여보 정도 걸어 들어가니 평탄한 길에 회나무와 버드나무가 담을 따라 빙 둘러 즐비하게 심어져 있었다. 황원이 개를 따라 그 문에 들어 가니 수십 칸의 방이 이어져 있었다. 그곳에 있는 여자들은 모두 아름답기 그지 없고 매우 고운 옷을 입고 있었으며, 어떤 여자는 거문고를 타고 어떤 여자들은 장기놀이를 하고 있었다. 북각에 이르니 세 칸의 집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지키고서 뭔가를 살피고 있는 듯하다가 황원을 보고는 서로 웃으면서 “이 청견이 妙音의 신랑을 데려왔구나!”라고 하면서 한 사람은 그곳에 머물고, 한 사람은 누각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뒤 네 명의 하녀가 나오더니 太眞夫人이 황원에게 전하라고 한다면서 “결혼할 나이가 다 된 한 여자가 있는데, 당신의 부인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고

49) 陶潛, 앞의 책, 2條, 3條, 5條, 6條, 劉義慶, 위의 책, 62條

50) 陶潛, 위의 책, 3條, 劉義慶, 위의 책, 38條, 62條.

51) 劉義慶, 위의 책, 38條, 46條, 陶潛, 위의 책, 3條. 동굴을 선경으로 한 최초의 이야기는 아마도 《열선전》에 나오는 邗子의 이야기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 이야기는, 한자가 동굴로 들어가 자신의 죽은 부인을 만나 그녀에게 符函과 藥을 받고 돌아 온다는 내용이다. 劉向撰, 앞의 책, 68條.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는 선경설화의 핵심인 선녀와의 결혼 모티프가 없다.

했다. 날이 어두워지자 그녀들이 황원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 갔다. 그 안에는 남향의 대청이 있고, 그 대청 앞에는 연못이 있으며 연못 안에는 누대가 있었다. 누대의 네 모서리에는 조그마한 동굴이 있고, 그 안에는 빛이 있어 회장과 자리를 비추고 있었다. 묘음의 얼굴은 빼어나게 아리따웠고 그 시녀들 역시 예뻐다. 혼례를 마친 뒤 예전처럼 즐기며 잤다. 며칠이 지나 황원이 집에 전갈을 하려고 잠시 돌아가려 하니, 묘음이 “인간과 神은 다른 길 입니다. 본래 오래 머물 수가 없지요”라고 했다. 다음날이 되어 佩玉을 풀어 주며 헤어지는데 계단을 마주하여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더욱 깊은 사랑과 공경을 보이면서 “만약 제가 그리우시면 삼월 초하루에 齋戒하시면 됩니다”고 했다. 네 시녀는 그를 문밖까지 전송하고, 그는 반나절 걸려 집에 돌아 왔다. 그는 그 일을 생각하고는 황홀해 했다. 매년 그 거일이 되면 항상 하늘 위에 나는 듯한 수레가 나타났다.(漢時太山黃原, 平旦開門, 忽有一青犬, 在門外伏守, 備如家養. 原繼犬, 隨鄰里獵, 日垂夕, 見一鹿, 便放犬, 犬行甚遲, 原絕力逐終不及. 行數里, 至一穴, 入百餘步, 忽有平衢槐柳列植, 行牆迴市 原隨犬入門, 列房櫺戶可有數十間, 皆女子, 姿容妍媚, 衣裳鮮麗, 或撫琴瑟, 或執博碁. 至北閣, 有三間屋, 二人侍直, 若有所伺. 見原相視而笑, 此青犬所致妙音壻也. 一人留, 一人入閣. 須臾, 有四婢出, 稱太眞夫人白黃郎, 有一女已弱笄, 冥數應爲君婦. 既暮, 引原入內, 內有南向堂, 堂前有池, 池中有臺, 臺四角有徑尺穴, 穴中有光映帷席, 妙音容色婉妙, 侍婢亦美. 交禮既畢, 宴寢如舊. 經數日, 原欲暫還報家, 妙音曰人神異道, 本非久勢. 至明日, 解珮分袂, 臨階涕泗, 後會無期, 深加愛敬, 若能相思, 至三月旦, 可修齋潔. 四婢送出門, 半日至家. 情念恍惚. 每至其期, 常見空中有駟車髣髴若飛.)⁵²⁾

위의 이야기는 범인 황원이 우연히 개를 따라 동굴로 들어갔다가 묘음이라는 선녀를 만나 사랑을 나누고 다시 헤어진다는 줄거리이다. 선녀를 만나 사랑을 나누고 헤어지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다. 선녀와의 만남은 필연적이어서 그들 둘 사이는 이미 결혼이 정해져 있고, 그들은 이전에 결혼한 사이처럼 합방을 한다. 이것은 다른 두 이야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유신·완조>의 이야기에서는 선녀들이 유신·완조가 온 것을 반기면서 “너의 신랑이 온 것을 축하한다”(賀汝壻來)⁵³⁾고 하며 잠자리를 함께 하고, <원상·근석>에서도 역시 “일찍이 당신들이 오기를 바랬습니다”(早望汝來), “신랑

52) 劉義慶, 위의 책, 250-251쪽

53) 劉義慶, 위의 책, 248쪽

을 얻게 되었다”(得壻)⁵⁴⁾고 한다.⁵⁵⁾ 이처럼 이들의 만남은 天定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것은, 이 선녀들이 초기의 선경설화에 나오는 결혼을 하지 못하고 죽은 여자와 동일한 성격의 인물이라는 점을 말한다. 여기에서의 변화라면 초기의 선경설화에서는 서왕모나 천제가 결혼의 중개자였다면, 이 이야기들에서는 그러한 중개자가 나타나지 않고 동물이 등장한다. 즉 이 동물의 안내 혹은 중개로 남녀가 결합을 하게 된다.

이 선녀들 역시 亡魂이기 때문에 남자와 필연적으로 이별을 한다. <황원>에서 ‘人神異道’는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다.⁵⁶⁾ 선녀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황원>에서처럼 제사를 지내거나, <월상·근석>에서처럼 죽어 尸解仙이 되어야 한다.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초기 선경설화인 <두난향>에도 나오는 것이나, 시해선이 된다는 것은 여기서 처음 나타난다. 이는 초기 선경설화에 나타나는 불사나 재생의 신화적 상징성이 선경에 대한 인간의 동경으로 다소 변화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위의 선경설화는 우선 동굴이라는 공간이 이야기의 주된 서사 공간이 되었다. 그곳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영원히 다시 찾을 수 없는 이상향의 공간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에 등장하는 인물은 평범한 남자이고, 그는 그 세계를 동경한다. 그 세계는 선녀들이 사는 신성세계이다.

이러한 선경설화는 唐 傳奇에 이르면 그 양상이 많이 변한다. 그 변화에 唐代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나온 선경설화인 <劉子卿>, <蕭總>, <劉導>⁵⁷⁾

54) 陶潛, 앞의 책, 2쪽

55) 이 두 이야기에는 선녀가 각각 두 명이 나오는데, 이는 신화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注 8), 23)을 참고 바람.

56) <자옥>에서는 ‘生死異路’로 나온다.

57) 이 세 이야기는 《窮怪錄》에 수록되어 있다. 이 《궁괴록》은 隋代에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李劍國, 《唐前志怪小說史》(南開大學出版社, 1984년) 452쪽. 이하 세 이야기의 인용은 李劍國, 《唐前志怪小說輯釋》(文史哲出版社, 1987년)에 의거함.

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이 세 이야기에 등장하는 선녀들 역시 모두 망혼인데, 위의 이야기들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소총>에서는 “소총이 산을 내려와 몇 발자국을 가다 어제 왔던 곳을 돌아 보니 巫山神女の 祠廟였다”(總下山數步, 廻顧宿處, 宛是巫山神女之祠)⁵⁸⁾, <유자경>에서는 “자경이 어느날 그곳(康王廟)을 방문했더니 廟 중에 두 여신의 塑像이 보였다”(子卿一日訪之, 見廟中泥塑二女神)⁵⁹⁾고 서술되어 있다. 이들의 만남은 宿緣⁶⁰⁾이며, 이별에는 증물이 남자에게 주어진다.

이 세 이야기에는 위의 선경설화와 다른 점이 있다. 남자가 범인이 아니라 文士로 바뀌었고,⁶¹⁾ 선경과 현실세계의 공간적인 거리도 다소 가까워지고 있다. 천상, 선경과 동일한 분묘, 그리고 인간세계와는 격리된 공간에 선녀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녀들은 현실세계와 가까운 공간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이전의 선경설화에 나타나는 재생 의식이나 신선적인 성격도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약화된다. 이러한 현상들이 唐代에 이르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그 양상도 많이 변한다.

58) 위의 책, 690쪽

59) 위의 책, 686쪽

60) <유자경>, “今者與郎契合, 亦是因緣”, <소총>, “今與郎契合, 亦有因由”.

61) <유자경>, “少好學, 篤志無倦”, <소총>, “總少爲太祖以文學見重”, <유도>, “導好學篤志, 專勤經籍”